



2026년 8월 30일(제1315호) 연중 제22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내가 버려야 하는 것”

군인은 우리나라의 영토를 지키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통점과 함께 각자마다 맡은 임무와 직책이 있습니다. 군종실만 보아도 세 종파의 성직자들이 군종실장, 신앙전력담당 그리고 신앙선도담당으로 업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주어진 임무가 어렵다고 해서 혹은 개인적으로 하기 싫다고 해서 업무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부서의 업무는 누군가에게 과중이 되고 다른 부서와의 관계도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어느 위치에 있는 자리마다 주어지는 책임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지는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 완성하려는 모습이 그 자리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말씀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하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누구에게나 짊어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는 주어집니다. 다만,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에 자신을 버리는 것에 고민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려놓아야 하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욕심이나 집착,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무겁게 만드는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지는 책임 앞에 개인적인 감정을 우선으로 두지 않아야 하는 것처럼, 나에게 주어지는 십자가 앞에서도 나의 욕심을 1순위로 두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천주교 신자 군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청해야 하는 기도는 십자가를 없애 달라는 바람도, 남들보다 가벼운 십자가를 달라는 바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하루 안에서 선한 사람으로 생활할 수 있기를, 하느님 마음에 드는 자녀로서 살아가 수 있는 은총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오늘 제2독서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우리 함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느님 마음에 들어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십시오.”



강진욱(세례지요한) 신부
민포대(해군 제2철대시령부) 성당 주임

제 1 독 시

예레 20,7-9

회 담 송

◎ 주님, 저의 하느님,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하나이다.

제 2 독 시

로마 12,1-2

복음 본궤송

◎ 알렐루야.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어, 부르심을 받은 저희의 희망을 알게 하여 주소서. ◎

복 음

마태 16,21-27

영 성 제 송

주님,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위해 간직하신 그 선하심, 얼마나 크시옵니까!

- 분량: A4 반쪽~한쪽
- 소재: 군 생활 에피소드, 소감, 진역 이후의 계획 등 소재 무관(신청곡 기능)
- 기한: 연중 상시 접수
- 접수: 군종교구 홍보국
(hongbo@gunjong.or.kr)
- 선정 시 소정의 모바일 쿠폰을 드립니다.
- 장병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성화이야기

침수형을 당하시는 성 세례자 요한



29일은 성 요한 세례자의 수난 기념일이었다. 본 작품은 ‘성 요한 세례화’의 오른쪽 패널로, 성인의 침수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마르 6,17-29).

화면 전면에는 세례자 요한이 침수되는 잔혹한 장면이 펼쳐진다. 특히 살로메는 당시 프랑스 공주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뽀족한 형태의 머리 장식 등이국적인 장신구로 치장한 채 세속적인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다.

이 장면 뒤로는 큰 창이 있는 복도가 이어지고, 그 너머로 연회가 벌어지는 공간이 보인다. 음식이 차려진 식탁 앞에서 살로메가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받쳐 들고 있는데, 살로메의 어머니 헤로디아가 세례자 요한에 대한 증오를 드러내며 그의 머리를 칼로 찌르는 모습도 묘사되어 있다.

로지예르 판 데르 비이덴(1399-1464)

1455-1460년경 제작

나무에 유화, 78.7 × 49.2cm

베를린 국립미술관 회화관, 독일

성인의 침수 장면을 자세히 보자면, 처형자는 세례자 요한의 오른쪽 어깨에 칼을 대고 왼손으로 그의 머리를 들어 쟁반에 올려놓고 있다. 세례자 요한의 몸에서는 아직 피가 뿜어져 나오고 있고, 처형자의 칼에서도 피가 떨어지고 있다. 이에 더해 처형자의 붉은 겹옷자락이 휘날리고 있어, 방금 막 처형이 끝났음을 알려준다.

김은혜(엘리사벳)

교구소식

군중주노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연중 제22주일: 봉헌 미사상 신부

◆ 교구장 동정

- 총장(제31사단) 성당 사목방문

때: 8월 30일(주일)

- 신임 군중사제 연수

때·곳: 9월 1일(화)~2일(수), 수원교구 아론의 집

◆ ‘군중의 시간’ 인민

때: 주일 오후 3시 ~ 4시

평화방송 라디오(105.3Mhz, 서울)

많은 관심과 청취 바랍니다.

“ ‘작은 가정교회’ ■ 이루는 온인성사의 해”